

●● 농축산소식

6월 22일부터 귀표없는 소 도축 금지

오는 6월 22일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것으로 6월까지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 등록 및 귀표 부착이 완료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를 시행하고, 유통단계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만큼 2008년 12월 22일 이후 사육하던 소나 신규로 출생한 소는 오는 6월 21일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하고 귀표를 부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농가의 출생 및 양수·도 등 신고접수와 귀표 부착지원을 위해 시군단위로 위탁기관을 132개소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위탁기관에서 관할 사육농가에게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신고사항과 위탁기관명·연락처 등을 미리 통보하여 준비토록 조치했다는 것.

오는 6월 22일 유통단계 시행전까지 소 전 두수에 귀표를 부착하기 위해 브루셀라병 검사기관의 귀표부착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소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직접 부착토록 하여 질병 유입 예방 및 소의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젖소의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율이 한우우에 비해 매우 저조하여 기립불능 소 불법도축 등 부당 유통행위에 적기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유통단계 시행일인 6월 22일보다 앞서 조기에 농가신고 및 귀표부착 등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 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는 한편 유통단계 시행전이라도 이력추적제 귀

표 부착여부, 위법한 귀표부착 여부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검사가 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개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소 사육단계부터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모든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DNA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 활용도 제고 및 영업체 신고업무 등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력추적시스템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할 계획이다.

농업보조금 전면 '대수술'

농업보조금이 전면 구조조정 된다. 아울러 기금통폐합 방안도 마련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월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업보조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농업보호 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아직 보조금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농업 보조금 개혁은 당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반영할 것이라며 무작정 농업을 보호하는 식의 보조는 없애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돈의 경우 품질장려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자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사 지원을 통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바꾸겠다는 것.

장 장관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당장은 농민들에

게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이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보조금 제도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서 국민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농업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우리는 뉴질랜드와 달리 영세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에 힘 보태주는 것이 바로 조직화라며 조직화된 생산자단체에 기술, 교육, 컨설팅, 경영 등에 이르기까지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에 따라 보조금 전체의 감액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오히려 단기간에는 보조금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할 곳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장 장관은 규모있는 농가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조로 생산성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면서 앞으로는 보조 없이 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장 장관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보다는 농민, 농민단체, 농협 등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수산물부내에 농업개혁추진 T/F(팀장 제차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개혁기간을 크게 내년까지로 보고 있다면서 농업 개혁 중 아주 큰 부분이 농협 발전인 만큼 신경분리와 조합규모화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4월에 농협법이 개정될 있도록 농협의 임직원과 조합장을 상대로 직접 실득작업을 벌일 계획임도 덧붙였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는 농협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익금이 농민들을 위해 사용토록 통로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신경분리가 되면 오히려 농민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장관은 기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신보 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앞으로 모든 정책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농업계의 일치단결로 대타협속에 농업개혁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축산물 등급표시 위·변조시 '엄벌'

앞으로 식육 등 축산물 거래시 등급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변조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제출돼 심의 대기 중이다. 개정안은 먼저 등급판정 확인서를 교부받고 축산물을 거래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영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영업자가 5년 이내 재범했을 경우엔 특수가중처벌 제도를 적용,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의원 16인은 제안 사유에 대해 교부된 등급판정확인서를 판정등급 이상으로 위조·변조해 학교 또는 군부대에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축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등급표시를 위조하는 행위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

●● 농축산소식

하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범자의 경우 가중 처벌 함으로써 축산물 판매업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건강 수호와 생명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거래부터다.

축산부문 '컨설팅부' 만 남아 농업에 흡수

농협중앙회가 '맥킨지보고서'에 따라 신경분리를 추진할 경우 정책, 지도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회는 기획관리본부와 회원지원본부, 경제사업지원본부, 상호금융중앙본부로 운영된다.

기획관리본부는 기획과 홍보, 인사를, 회원지원 본부는 조합 대표기능과 조합감사, 교육지원을 담당한다. 경제사업지원본부는 구매사업과 정책사업을, 상호금융중앙본부는 상호금융중앙은행 역할과 함께 예금자보호기금 관리, 조합 지도 및 지원, 운용 대행을 맡게된다. 농업경제부문은 그대로 경제사업지원본부로 유지되며 축산경제부문은 1개 부서(축산컨설팅부)로 축소돼 농업부문에 흡수된다. 중앙회는 24개 부서로 구성된다.

NH금융지주는 총 4본부 13부서 9자회사이다. 경영기획본부, 재무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로 나뉘며 별도의 이사회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금융지주 산하에는 기존의 신용자회사를 두게 되며,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신설한다.

NH경제지주는 3본부 10부서 14자회사(4개 부

문)로 구성된다. 경영기획본부, 재무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로 운영되며,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자회사는 자재부문에 남해화학, 농협사료, 영일 케미컬, 농협아그로, 삼협농산이, 가공부문에 농협 목우촌, 농협고려인삼, 도매부문의 도매유통회사는 신설되며, 소매부문에 신설되는 소매유통회사를 비롯해 농협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대전농산물유통센터, NH개발 등이다. 금융과 경제 부문 모두 실질적인 사업은 자회사가 담당하며, 지주회사는 사실상 자회사를 관리하는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

농협법개정안 심의 보류,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농협법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농협법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3월 23, 24일 소위를 열었으나 농협법개정안만을 제외한 나머지 45개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다.

이날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게 된 것은 "앞으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을 개정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될 일을 이번에 개정하고, 그 때 가서 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최규성의원과 조배숙의원의 강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농협법개정은 앞으로 신경분리를 위한 기초인 만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올인' 해 왔는데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매

우 난감해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런 가운데 농협법만을 제외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45개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고 농식품위 본회의로 넘겼다.

검정우 평균유량 9천598kg... '세계 4위'

우리나라 유우군검정사업에 참여한 젖소들이 지난해 생산한 원유는 두당평균 9천598kg으로 이 사업 개시 초기 보다 1.93배 향상됐으며 세계 4위에 랭크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24~25일까지 1박2일 동안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소재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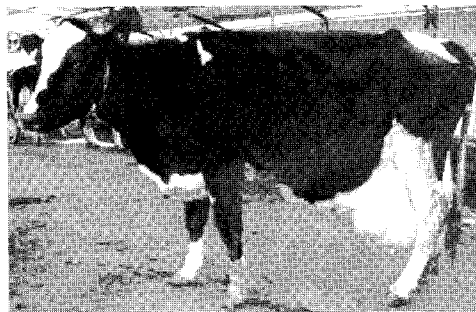
이번 평가회 결과, 지난해 29개 검정조합의 3천 772호 검정농가에서 보유중인 14만9천두의 두당평균 산유량은 9천598kg으로 1980년 4천957kg보다 1.93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성적은 검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젖소 두당평균 산유량 7천624kg보다 1천 974kg이상 많으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연간 2천407억원(농가평균 6천400만원)의 소득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성적은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 45개 회원국 가운데 이스라엘 1만1천118kg, 미국 1만 49kg, 캐나다 9천677kg에 이어 4위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에 젖소 한 마리가 비유기 동안 우유를 최고 많이 생산한 개체는 경

기도 양주시 연산목장(대표 김삼용진)의 '연산 365호' 호로 유량이 성년형으로 환산하여 2만2천 772kg으로 2007년 최고 산유량 1만9천405kg 보다 3천367kg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유 200ml 65만팩 짜낸 '젖소 여왕'



평생 200ml들이 65만개 분량의 우유를 생산한 12살짜리 소가 생애 우유 생산량 부문 최고 소로 선정됐다. 농협은 2008년 유우군 검정사업 평가결과, 경기 김포 현웅목장(목장주 차진숙)에서 사육 중인 관리번호 33번 소가 살아있는 젖소 중 국내 최고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소는 1997년 1월 9일 태어나 아홉 번 새끼를 낳았고, 총 3,139일 동안 착유해 총 13만 825kg (200ml 65만개)의 우유를 생산했으며 앞으로도 2년 더 우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15만4,000kg 이상을 생산해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된다. 역대 생애 최고유량 기록보유 젖소는 경기 여주 연산목장에서 사육한 '힘순이'로 14만9,446kg을 생산하고 2007년 죽었다.

국내서 우유를 10만kg 넘게 생산한 젖소는 작년 전국에 125두가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에는 절반인 65두였다. 농협이 정부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유우군 사업은 암소의 산유량과 유지

●● 농축산소식

을,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에 대한 생산능력을 측정해 우유품질과 산유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체 두수의 약 60%가 참여하고 있다.

오늘 짠 우유, 이를 만에 중국 안방 배달

“페리호 위동이 어제 오후 5시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해 오늘 오전 10시 신선한 우유를 싣고 칭다오(靑島)항에 도착했어요. 대관령 목장에서 짠 우유가 이튿날 아침 일반 가정에 배달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난 2월 19일 오후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항 선착장. KOTRA 칭다오무역관 박재석 대리는 통관 서류를 검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산우유 6t(280상자)이 칭다오항에 들어왔다. 우유병에는 ‘2월 18일 출고, 3월 2일 23시13분까지’라고 생산일자과 유통기한이 써 있다. 잠시 뒤 우유를 실은 냉동탑차가 칭다오 시내와 베이징·상하이 등지로 출발했다. 국내 수퍼에서 병당 2600원에 팔리는 이 우유는 칭다오에서는 훨씬 비싼 32위안(약 6400원)에 팔린다.

우유는 그동안 중국 시장 진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우유는 보통 통관에 4일, 상품검사에 9일 소요돼 제품을 넘겨 받는 데 아무리 빨라도 13일 이상 걸린다. 유통기한이 최장 9일가량인 신선 우유는 통관도 마치고 전에 폐기해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바로 KOTRA물류센터 덕택이다.

칭다오 무역관이 우유 통관에 관심을 보인 것은 지난해 5월. KOTRA는 약 2개월간 해관(海關·세관)과 상품검사국 등을 쫓아다니며 방법을 모색하던 중 사문화돼 있던 ‘집중통관 신고제도’를 발견했다. 부패하기 쉽거나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우선

국산우유가 중국으로 가는 과정 (인천항→상하이)

칭다오 도착 3일 전

선적서류 도착(서울 본사→칭다오 세관), 통관 절차 시작

도착 1일 전 착유 및 가공, 인천항 선적

도착 당일 09:00 선박 도착(인천항→칭다오항)
10:00 하역
10:30 선적 리스트 검사
13:00 제품 검사(해관원)
15:00 샘플 채취 정밀검사
16:00 통관 완료
17:00 유통업체, 제품 인수
20:00 칭다오 발송(냉장트럭)

도착 이튿날 10:30 상하이 도착
12:30 상하이 심점 도착

통관이 가능하다는 규정이었다.

KOTRA의 인지도와 신뢰를 높이 평가한 칭다오 해관은 마침내 한국산 신선제품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은 미리 특급우편으로 전달받은 화물서류를 기초로 필요한 서류작업을 시작한다. 화물이 도착하면 곧바로 검수·검역이 이뤄진다. 양장석 칭다오 무역관장은 “13일 이상 걸리던 통관작업이 하루 만에 가능해졌다”며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우유뿐만 아니라 고추장, 심지어 배추까지 팔 수 있는 가까운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터진 멜라민 우유 사태 이후 한국산 신선제품 수요가 늘면서 매일유업·빙그레·연세우유 등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KOTRA 물류시스템이 있기에 이들 업체에 중국시장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축산경제신문 등〉